



아버지, 1년만에 뵙습니다 1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해 환자와 면회자 중 한명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으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요양중인 부모님을 아들 김군관(32·오른쪽)씨가 만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계엄군·경찰 피해도 조사한다

진상조사위, 객관성·형평성 확보하고 국민통합 국방부·보훈처·경찰청 등에 신고청 설치 요구키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군인과 경찰들의 명예 회복의 길이 생겼다. 이번 조사 개시는 그동안 이뤄진 피해자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당시 군·경 당사자들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5차 전원위원회에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이로써 1980년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2만여명의 계엄군의 장교·사병과 2700여명 정도의 경찰들을 전부 조사한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개시의 결정은 군과 경찰의 피해도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3조 제11호)이 올해 1월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특별법에서는 당시 현장의 시위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도 기존 발표 경위, 민간인 학살 등에 포함 총 11개 항목을 진상규명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조사위는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과 경찰 전수 조사 과정에서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 이들의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다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청년장애인 웹툰아카데미' 참여

호남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학과장 구만채)가 웹툰 작가들과 함께 2021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사업 꿈을 꾸며 웹툰 창작 아카데미에 참여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원하고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소외된 청년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의 시선에 맞는 특수한 웹툰 교육 시설과 커리큘럼을 통해 웹툰 작가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호남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백중성 교수와 웹툰 프로그래머 김성진(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최영일(다음웹툰, 배틀그라운드), 양진열(투믹스), 양도열(카카오페이지, 투믹스) 작가, 이재훈(주)공감미디어 웹툰 제작사 대표가 참여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를 교육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사업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에 웹툰 제작 장비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소외 계층 대상의 웹툰 교육 거점을 마련하고 우수 창작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아파트 갑질·갈등 들여다보니

광주 북구, 간담회 개최... 사례 청취·개선 방안 등 논의

"동대표가 매일 관리사무소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업무지시를 내립니다.", "관리사무실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권한이 없음에도 입주자 대표가 휴게시간에 지속적으로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공동주택 내 갑질과 갈등 예방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용봉동 용봉주공아파트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주택관리사협회 서금석 광주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와 입주주민 간 갈등,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피해 등의 사례에 대한 청취와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나온 갑질의 유형은 ▲관리사무소

장 업무에 대해 동대표가 직접 처리하거나 지시 ▲과도한 감독, 필요 이상의 민원제기와 정보공개요청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인력감축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훼손) 행위 등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관련 유관단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인식개선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갑질 개선·대처방안을 안내하는 등 입주자와 관리주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운영, 현재까지 1308건의 전화·방문상담과 39개 단지·47건의 분쟁 현장을 방문해 입주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해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1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언제 종식될지,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질 높

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학습 수준에 주목하며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 주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동신대, 천연물로 장 건강 식의약품 개발한다

정부 사업 선정...나주시 등과 5년간 110억 지원받아

동신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주관 연구기관을 맡은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전남도, 나주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등과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115억여원을 지원받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개발'에 나선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이다. 최근 여러 질병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며 화장품, 건강식품, 제약산업의 소재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동신대는 사업단이 개발한 한국인들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강나이 측정 알고리즘, 건강 나이 측정 원천 기술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이 원천 기술과 전남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결합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건강 나이 측정 프로그램, 장·피부·혈관 건강과 장수에 효과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식의약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신대 한방병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한 뒤 지역 기업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추천, 사용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마이크로바이옴 식의약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글로벌 Red 바이옴 시장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는 105조원으로 추산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MG희망나눔



우리동네
sMile aGain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 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내 용 MG체크카드 이용자
혜 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접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신 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